

# 오리고기 소비특징과 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

배형호\*, 박남건\*, 이승인\*, 전순미\*, 정은영\*

\*국립축산과학원

e-mail: bae0887@korea.kr

## Research on duck meat characteristics and consumption measure

Hyung-ho Bae\*, Nam-gun Park\*, Seung-in Lee\*, Sun-mi Jeon\*,

Eun-young Jeong\*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국내 연간 오리고기 소비량은 증가했다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KREI 농업관측센터(2024 농업전망)에서 발표한 자료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한 가금육 소비자 조사(2023.9), 축산물 품질 평가원(2023)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오리고기 소비 행태, 소비특징 등을 살펴보고 소비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자료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자료에는 월 1회 이상 가구취식빈도 42.6%, 일반성인 41.2%, 최근 1년 취식 없음은 각각 5% 이상이다. 반면에 KREI 농업관측센터 자료에는 2023년 연간 오리고기 소비 빈도는 연간 1~4회(가정 내63%, 외식66.4%)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고 최근 1년 소비 없음도 가정 및 외식에서 10% 이상으로 조사됐다. 향후 오리고기의 소비는 소비자 조사 결과로는 밝지 않다. 축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 가정 내에서 훈제 오리 외에 모든 요리에서 소비가 감소할 것이며, 가정 내 배달·외식에서는 모든 요리에서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4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전년 대비 8.3% 증가한 오리고기 생산량을 달성할 것이다. 오리고기의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품질개선(신선도 및 위생관리, 유통/판매방식 개선), 조리법 개발(색다른 요리법, 간편한 요리 등), 한국적인 음식개발을 통한 세계화 등이 필요하다.

### 1. 서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및 미·중간의 무역전쟁 등 외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료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축산농가에도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축산관련 질병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축산물 소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 오리고기 소비와 관련하여 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 품질 평가원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소비특징과 소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연구대상 및 설문지 구성

먼저 KREI 농업관측센터 발표 자료를 보면 오리고기 소비자 조사는 1월 달에 2주 정도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600명 이상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3년 9월 13일~9월 25일까지 가정 내 소비와 관련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20~69세 주부 및 1인가구 1,000명과 가정 외 소비 전국 20~69

세 일반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질문에 의한 인터넷 조사 및 개별전화면접(성별, 연령별, 지역별 임의표본할당)을 병행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은 3,000명의 대상을 바탕으로 약 600명 정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략 1년 동안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 3. 결론

#### 3.1 오리고기 소비형태

농업전망 2024년 자료에 따르면 2023.11~2024.02.

까지 HP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4개월간 사육제한이 실시되었다. 2023년 오리고기 1인당 소비 가능량은 총 공급 감소로 2022년 2.52kg 대비 9.1% 감소한 2.29kg<sup>1)</sup>으로 추정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가구의 42.6%가 가정에서 일반성인의 41.2%가 가족 외 외식으로 월 1회 이상 오리고기를 취식하고 있으며, 취식빈도는 2020년 대비 가정 내 오리고기 취식빈도

1) 국립축산과학원 2023년 9월 조사에는 3.65kg으로 1.37kg의 차이가 남. 겨울철 HPAI 발생의 영향으로 소비자 인식 차이로 추정

는 3.1%p, 일반성인의 경우 2.7%p 증가했다.

[표 1] 가구 및 일반성인 오리고기 취식빈도

단위 : %	가구 취식 빈도				일반 성인 취식 빈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주 1회 이상	5.7	5.1	8.8	10.6	8.6	16.1	13.2	8.9
월 1~2회	31.9	28.7	30.7	32.0	35.8	30.4	25.3	32.3
3개월 1회	24.2	21.7	26.9	27.9	20.7	18.6	20.3	29.6
연 1~2회	20.6	20.9	17.1	23.6	20.7	21.6	20.5	23.8
최근 1년 없음	17.5	23.5	16.6	5.9	14.2	13.4	20.6	5.4
월 1회 이상 취식률	37.6	33.8	39.5	42.6	44.4	46.5	38.5	41.2

2023 한국인의 가금육 소비트렌드

오리고기 소비를 비교해 보면 국립축산과학원 자료에는 월 1회 이상 가구취식빈도 42.6%, 일반성인 41.2%, 최근 1년 취식 없음은 각각 5% 이상이다. 반면에 축산물 품질 평가원 자료에는 2023년 연간 오리고기 소비 빈도는 연간 1~4회( 가정 내 63%, 외식 66.4%)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고 최근 1년 소비 없음도 가정 및 외식에서 10% 이상으로 조사됐다.

[표 2] 가정 내 소비와 외식(배달포함) 소비

구분	0회	1~4회	5~8회	9~12회	13회 이상	합계
가정 내 소비	14.7	63.0	16.8	4.2	1.3	100.0
외식(배달 포함) 소비	18.2	66.4	12.3	2.2	0.9	100.0

2023 축산물 품질평가원

3.2 오리고기 소비 관련 특징

국립축산과학원 자료에는 가정 내 조리는 훈제오리 78%, 가정 내 배달·외식은 오리주물럭 31.6%, 가정 외 배달·외식은 오리구이 28.6% 순이다.

KREI 농업관측센터 자료에는 가정 내 주로 먹는 오리고기 메뉴는 훈제오리 41%, 오리구이 29.2%, 오리주물럭 16.8% 순이다. 외식에서 주로 먹는 소비는 오리구이, 오리주물럭, 오리백숙 등 가정에서 소비하기 어려운 메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한번 살 때 평균 구매량은 618g, 평균 구매금액은 12천원 수준이다. 소비현황을 보면 오리 슬라이스가 54.5%로 훈제오리 45.5%보다 높게 조사됐다. 소비 현황에서는 남자가 63.6%로 여자 36.4% 보다 오리고기를 더 선호한다. 결혼에서는 기혼이 90.9%, 미혼 9.1%보다 많다. 자녀 유무에서는 무자녀보다 유자녀가 80.0%로 월등히 높다. 자녀 연령에서는 15세 이상 37.5%, 8~14세 이상 37.5%, 4~7세 12.5%, 1~3세 12.5% 순으로 조사됐다.

3.3 오리고기 소비전망 및 소득에 따른 소비

축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 가정 내에서 훈제 오리

외에 모든 요리에서 소비가 감소할 것이며, 가정 내 배달·외식에서는 모든 요리에서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3] 축산과학원 소비자조사 오리고기 요리별 소비 전망

단위 : %		증가	감소	GAP(증가-감소)
요리별 향후	훈제 오리	25.4	15.9	9.5
	오리 구이	18.6	19.4	-0.8
가정 내 소비 변화 (가정 내 조리, 가정간편식)	오리 백숙	11.1	27.7	-16.6
	오리 주물럭/볶음탕	14.0	23.6	-9.6
	샐러드용	13.3	30.5	-17.2

KREI 농업관측센터 자료에서도 오리고기는 감소가 증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보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2024년 오리고기 소비의향

구분	동일	감소	증가
%	70.3	15.5	14.1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오리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경우는 소득이 200~400만원에서 54.5%로 가장 높고 600~800만원 27.3%, 400~600만원 순이다. 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비율은 18% 정도이다. 연령별로는 40~49세가 38.7%로 가장 높고 30~39세 28.5%, 50~59세 24.7% 순이다.

3.4 오리고기 활성화 방안

오리사육에 있어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HPAI 및 축산관련 질병 등이다. 정부당국의 사전예방과 농가들의 예방 철저 및 일반시민들의 철새도래지 방문 전 예방 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오리고기의 소비는 소비자 조사 결과로는 밝지 않다. 2024년 농촌경제 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전년 대비 8.3% 증가한 오리고기 생산량을 달성할 것이다.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첫째, 영양과 냉장/냉동 여부, 원산지 표시, 맛/육질. 유통기한 철저, 신선도에 대한 개선 및 홍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오리고기에 대한 다양한 레시피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장 한국적인 음식과 세계시민이 만족할 만한 맛있는 요리개발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농업전망".
- [2] 국립축산과학원 "2023 한국인의 가금육 트렌드"
- [3]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통계 "소비자 패널 데이터-오리- 2023 전체"